

올림픽 연기에 97년생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답답'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공식 연기되면서 '꿈의 무대'를 기다려온 올해 만 23세 한국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과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자 축구는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연령 제한(만 23세)이 있는 종목이다.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1997년생으로 내년이면 만 24세가 되는 대표팀 미드필더 원두재(울산)는 이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올림픽을 통해 내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원두재는 지난 1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우승을 견인하며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다. 원두재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도 선정됐지만,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출전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올림픽축구대표팀의 또 다른 동갑내기 선수 이동경(울산)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황망한 심정인 것은 똑같다. 이동경은 도쿄 올림픽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먼저 알리고 유럽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근 미

국프로축구(MLS) 밴쿠버 화이트캡스 이적을 과감히 포기했다.

대표팀에서 1997년생 선수들은 11명에 이른다. 1997년생을 중심으로 팀을 구상해왔던 김학범 대표팀 감독의 머릿속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내면 병역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선수들은 일단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다. '올림픽 티켓을 따낸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있다'는 명분 아래 한시적으로 만 24세로 연령 제한을 높이는 방안이 유일한 구제책이기 때문이다.

원두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열심히 몸을 만들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또 이동경은 "팀에서 훈련을 잘 소화해서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K리그라는 치열한 무대에서 살아남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또 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여자골프, 올림픽 티켓 경쟁 다시 시작

올림픽 골프는 남녀 모두 국가당 2명으로 출전 선수가 제한된다. 하지만, 세계랭킹 15위 안에 여러 명이 있으면 국가당 최대 4명까지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여자골프 올림픽 티켓 확보전이 가장 치열한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계랭킹 15위 안에 6명이나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 티켓 전쟁은 여자양궁만큼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오는 6월29일 기준 랭킹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올림픽 티켓 경쟁에서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하이 트진로)과 3위 박성현(27·솔레이어)은 느긋했다. 출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면서 이제 1년 뒤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고진영과 박성현의 허탈감이 커 보인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위를 굳게 지키고 있고 랭킹 점수도 8.44점으로 크게 앞서 올림픽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던 고진영으로서는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다.

고진영이 이날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올림픽 연기를 조금 예상하고 있었다."며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현도 "연습과 준비 기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플랜을 잘 세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훈련은 늘 하던 패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인비(32·KB금융그룹·11위)는 랭킹을 끌어 올릴 시간을 벌었다. 박인비는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을 생각하면 취소가 아닌 연기라서 다행"이라며 도쿄올림픽 2연패에 당연히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도쿄올림픽 내년으로 개최 연기

올해 7~8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가 취소가 아닌 연기된 것은 1896년 근대 올림픽이 태동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올림픽은 1916년 하계, 1940년 하·동계, 1944년 하·동계 등 모두 5차례 취소됐다. 모두 전쟁이 원인이었다.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해 7~8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올림픽에 관해 "대강 1년 정도 연기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검토해줄 수 없는지 제안했다. 바흐 회장으로로부터 100% 동의한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양자가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 연기 제안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수들이 최고의 몸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IOC와 대회 조직위원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며 "IOC 회장과 일본 총리는 2021년 여름까지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모든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성화 봉송 행사도 중단됐다. 모리 요시로 대회 조직 위원장은 "올림픽 성화는 당분간 후쿠시마 현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